



소득증대를 위한 관상수재배 변화

- 2005년도 관상수 재배면적은 8천ha -

〈산림청 임산물이용과 장석규〉

2005년말 기준으로 관상수의 총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8,294ha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재배수종은 키가 작은 나무인 철쭉, 회양목, 오갈피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 따라 영세규모의 재배자는 점진적으로 재배를 포기하고 1ha 이상으로 단지화·규모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재배수종으로는 단기성 상품출하로 자금회전이 용이한 철쭉, 영산홍, 회양목, 오갈피 등 키가 작은 관목류가 상위재배 10개 수종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재배현황】

〈표 1〉에서와 같이 재배면적 규모를 보면 8,294ha로서 2004년도 말 9,168ha보다 874ha가 감소하였으며 전북, 경남, 경북, 충남순으로 재배면적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재배면적은 1.38ha로서 2004년도말 1.34ha보다 0.04ha가 증가하였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보고 즐기기 위하여 조성하는 관상수(조경수)의 재배면적은 2005년말 기준 8,294ha로 전년 9,168ha보다 10%가 감소하였고 대부분 임야나 밭에 재배하고 있다. 또한 재배본수와 재배자수 및 재배포지수도 전년보다 다소 감소추세이나, 1인당 재배면적은 1.38ha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의 시장개방 등 농업여건의 변화

〈표 1〉 재배면적 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특별시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 적	8,294	324	829	387	567	931	1,401	898	1,285	1,316	356
비율(%)	100	4	10	5	7	11	17	11	15	16	4
순 위		10	6	8	7	4	1	5	3	2	9

〈표 2〉 재배자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특별시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배자수	6,011	332	790	210	563	789	893	818	469	966	181
비율(%)	100	6	13	3	9	13	15	14	8	16	3
순 위		8	4	9	6	5	2	3	7	1	10

〈표 3〉 재배포지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특별시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포지수	10,084	492	858	386	895	1,492	1,889	1,765	949	863	495
비율(%)	100	5	9	4	9	15	19	17	9	8	5
순 위		9	7	10	5	3	1	2	4	6	8

〈표 4〉 재배본수 현황

(단위 : 천본)

구 분	계	특별시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 수	160,131	5,448	20,142	5,584	7,482	31,130	27,089	29,928	7,372	22,748	3,208
비율(%)	100	3	12	3	5	20	17	19	5	14	2
순 위		9	5	8	6	1	3	2	7	4	10

〈표 5〉 영급별 재배본수

(단위 : 천본)

구 분	계	1년생	2~3년생	4~5년생	6~10년생	11년생 이상
본 수	160,131	47,494	65,141	24,529	15,098	7,869
비율(%)	100	30	41	15	9	5

〈표 6〉 수종별 재배본수

(단위 : 천본)

수종	계	철쭉	회양목	주목	오갈피	영산홍	반송	단풍	느티
본 수	160,131	30,145	12,201	11,540	9,826	9,574	7,571	5,898	4,113
비율(%)	100	19	8	7	6	6	5	4	3
순 위		1	2	3	4	5	6	7	8

잣나무	벗자무	스잰	동백	사철나무	곰솔	촉백	개나리	무궁화	기타
3,153	3,026	2,891	2,845	2,371	2,328	2,315	2,249	2,003	46,082
2	2	2	2	1	1	1	1	1	29
9	10	11	12	13	14	15	16	17	-

재배자수는 6,011명으로 2004년도말 6,843명보다 832명이 감소하였으며 경남, 전북, 전남, 경기 순으로 많다.

재배포지수는 10,084개소로 2004년도말 11,573개소보다 1,489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재배본수와 수종현황〉

〈표 4〉와 같이 재배본수는 1억6천만본으로

2004년도말의 1억8천만본보다 2천만본이 감소하였고 〈표 5〉에서와 같이 영급별로는 3년생 이하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잣수종은 〈표 6〉와 같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고 단기간에 생산하여 상품출하로 자금회전이 용이한 관목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 수종으로는 철쭉(19%), 회양목(8%), 주목(7%), 오갈피(6%), 영산홍(6%), 반송(5%), 단풍(4%), 느티(3%) 순이다. 